사찰벽화 불후의 명작

사찰벽화 명작순례

⑯ 양산 신흥사 대광전 약사삼존 · 아미타삼존벽화

동–약사, 서–아미타벽화 세 곳 현존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사찰벽화의 보고다. 하나의 법당 건축에 약사여래삼존도, 아미타여래삼존도, 관음보살삼존도, 육대보살도, 사천왕도, '쌍림열반상'처럼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 문수보현보살도, 주악비천도, 화조도 등 묵직한 소재들의 벽화가 밀도 높게 결집해 있다.

벽화의 묘사력도 불화를 그려내는 붓질의 경지 그대로다.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한국산사 사찰벽화의 성소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광전은 원래 대웅전이었다. 대광전에 있는 법당 중 수기도 '신흥사 대웅전 중수기'다. 그래서인지 비로자나불을 주존불로 모시는 대광전의 편액과는 달리 법당에 실제 봉안한 불상은 보현보살-석가모니불-문수보살의 석가모니불삼존이다. 학계 안팎에선 삼존을 제화갈라보살-석가모니불-미륵보살의 수기삼존불로 보기도 한다.

대광전 안팎에 그려져 있는 60여 점의 벽화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법당 동측면의 약사여래삼존도와 서측면의 아미타여래삼존도, 그리고 후불벽 뒷면에 흑색 먹 바탕에 백묘로 그린 관음보살삼존도 등 세 벽화다. 세 벽화 모두 불보살, 또는 세 보살로만 구성한 삼존도 형식이라 특별하다.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동측면 벽에 약사여래삼존도, 서측면 벽에 아미타여래 삼존도를 대칭적으로 그린 사례는 세 곳뿐으로 매우 희귀하다. 그 세 곳은 양산 신흥사 대광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 양산 통도사 약사전으로 부산, 양산에 집중 분포하는 지역 특성이 강하다.

통도사 응진전이나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에서도 그런 형식을 엿볼 수 있는데 벽화의 배치는 비대칭적이다. 두 곳 다 동측면은 '백호도'(통도사 응진전)나 상산의 네 선인을 그린 '상산사호도'(봉정사 응진전)를 그려 다른 패턴을 보이지만 서측면은 아미타삼존께서 극락왕생자를 내영하는 장면의 벽화를 배치해서 건축 공간을 방위에 따른 불국정토로 해석하려는 동일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의 경우 내부 정면 포벽과 대들보 등에 '동방약사불 유리회', '극락도사아미타불' 등의 묵서를 남기고 있어 다양한 불국토 장엄 의지를 두루 살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곳의 벽화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양산 신흥사 대광전 향우측(동쪽) 벽면의 약사여래삼존벽화.



양산 신흥사 대광전 향좌측(서쪽) 벽면의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사찰 법당	벽화 구성	평균 크기(세로×가로)	제작 시기
양산 신흥사 대광전	동–약사, 서–아미타	220×345㎝	17세기 후기
부산 범어사 대웅전		260×440㎝	18세기 전기
양산 통도사 약사전		110×450㎝	18세기 후기
양산 통도사 응진전	동–백호, 서–아미타	136×266㎝(아미타)	18세기 후기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동–상산사호, 서–아미타	73×219㎝(아미타)	19세기 후기

신흥사, 범어사엔 삼세–삼방불 중첩

그런데 위 다섯 곳 중에서 통도사 약사전을 제외한 네 곳의 법당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 삼존도 벽화장엄은 단순한 우연 차원을 넘어선다. 그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네 곳의 법당에 모신 삼존의 불보살이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흔한 구성이 아닌 '수기삼존불(授記三尊佛)' 구성이라는 경이로운 공통점을 가진다. 즉 신흥사 대광전, 범어사 대웅전, 통도사 응진전, 봉정사 응진전 등 네 곳 모두 제화갈라보살(과거불)-석가모니불(현재불)-미륵보살(미래불) 삼존을 봉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분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걸쳐 서로에게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신 '수기삼존불'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더욱이 양산 신흥사 대광전과 부산 범어사 대웅전에선 과거-현재-미래의 '삼세불(三世佛)'과 서방-중앙-동방의 '삼방불(三方佛)'이 시공의 양변을 초월해 중첩적으로 통합한 모습이다.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동서벽면의 삼존도 벽화는 이 같은 특별한 구성의 시원과 전형을 보여주는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시공을 초월해 시방삼세에 상주설법하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범우주적으로 구현하고 있어 놀랍다.

그런데 통도사 약사전의 사례까지 두루 포함하면 동-약사여래삼존, 서-아미타여래삼존의 대칭적 배치는 단순히 통불교적 병렬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부처님의 병렬에 의한 통불교적 집합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상주불변과 교의에 따른 방위 불국토의 현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관점일 때 그 법당이 대웅전이든, 대광전이든, 응진전이든, 약사전이든 동서벽면의 삼존도벽화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법당의 동쪽 벽은 단순한 물리적 벽이 아니라 동방유리광정토이고, 서쪽 벽은 서방 극락정토로서 극적으로 승화된다. 벽화 속에 관상을 통한 중생구제의 원력이 담겨 있다.

동서 벽면에 삼존도 벽화 조성하여
동쪽 벽면은 동방만월 유리광정토로
서쪽 벽은 서방극락정토로 극적 승화
삼존도 벽화 수기삼존불 법당에 조성

삼존도 벽화 분포의 부산, 양산 지역 집중성은 지역 화승 집단의 성립과 활동 범위, 화풍 계승 등과 필연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동서 방위별 삼존도 장엄을 17, 18세기 부산, 양산권의 화원 집단에 의해 전승된 법당장엄의 한 형식으로 이해할 때 지역 집중성의 의문은 자연스레 풀릴 것이다.

약사삼존도 벽화, 조형미의 정수

대광전 동측면의 약사여래삼존도는 한국산사 벽화장엄의 조형미와 색채미의 정수를 보여준다. 구도와 구성, 채색, 묘사력에서 탁월한 회화 능력을 발휘했다. 천에 대형불화를 능숙하게 그려본 전문화원의 붓질이 고스란히 뱄다. 부처님의 의습에 표현한 세부 문양 묘사력, 좌우협시 보살이 손에 든 지물 표현 등에서 불화를 숱하게 그려본 전문성을 숨길 수 없다.

약사여래삼존의 체격을 보라. 세 분 모두 거의 직각으로 떡 벌어진 어깨에 육중한 체구가 한눈에도 다부진 인상을 남긴다. 위로 뻗친 눈매도 날카롭고 예리하다. 약사여래의 상호에선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카리스마가 넘친다. 약사여래의 몸에서 발광하는 오색찬란한 광명도 신령함과 성스러움의 아우라를 극대화한다.

약사여래는 중생을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12가지 대원을 세웠다. 그것이 '약사여래 12대원'이다. 그중 첫 번째 대원이 '광명보조원(光明普照願)'이다. "내 몸에서 찬란한 광명이 빛나 무량한 세계를 끝없이 비추어 일체중생들이 내 몸과 같이 아름답게 장엄하겠습니다." 약사여래 광명의 특별함은 그 대원에서 비롯된다. 벽화 속 광명은 무려 사빛이다. 초빛-이빛-삼빛-사빛의 바림으로 층층이 풀어 다채로운 색의 효과를 통해 광명에 성스러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오색찬란한 광명을 자세히 보면 톱니처럼 뾰족뾰족하고 날카롭다. 동쪽의 아침 햇살처럼 쨍하고 찬란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약사여래 정수리 위로 유난히 우뚝 솟구친 흰색 정상계주도 대단히 인상적이다. 정상계주(頂上髻珠)는 정수리 위로 솟은 보주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무상정등각'의 상징 조형과 다름없다. 중생의 모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의 위신력도 중생구제의 원력과 저토록 솟구친 흰색 보주, 곧 지혜에서 나온 것임은 불문가지다. 약사여래 좌우 협시보살은 일광보살, 월광보살이다. 좌협시 일광보살은 보관에 붉은 태양을 장식했고 두 손엔 연꽃 가지를 받쳐 들었다. 그에 상응하는 우협시 월광보살은 보관에 흰색 보름달을 장식했고 두 손엔 여의 가지를 받쳐 들었다. 태양은 진리의 상징이고, 보름달은 자비의 상징이다.

서쪽 세 화면 아미타설법도 구성

동측면의 약사여래삼존벽화가 묵직하고 남성적이라면 서측면의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보다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따스하다. 불보살에 베푼 색채도 한결 밝고 부드럽다. 아미타불의 정수리에는 위로 솟구치는 정상계주도 없을뿐더러 광배도 부드러운 곡선 흐름으로 원만하고 차분하다. 동방 유리광정토의 약사여래 광배가 아침 햇살을 닮았다면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여래의 광배는 저녁노을의 이미지다.

머리에 하얀 두건을 늘어트린 관세음보살은 어깨선부터 남다르다. 자연스레 힘을 빼서 흐름이 부드럽다. 관음보살이 갖춘 자비로움의 덕목을 환기시켜 준다. 관음보살은 보관에 아미타여래의 화불을 모셨고, 대세지보살은 경전을 오른손에 쥐었다. 두 협시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을 대표한다.

서측면 아미타삼존도의 특징은 화면 구성에 있다. 삼존도에 머물지 않고 아미타여래설법도의 규모로 확장했다. 같은 측면 칸에 상중하 세 화면으로 분산했다. 상층엔 대세지보살-아미타여래-관세음보살의 아미타삼존도를 그리고, 중층엔 문수, 보현, 지장, 미륵 등 육대보살을, 맨 아래 하층엔 사천왕상을 그렸다. 인물군 배치에서 위신력과 계위에 따라 공간위상학적 위계를 달리한 점이 흥미롭다. 상중하 세 벽화를 하나의 화면으로 합치면 완전한 구성은 아니지만 하나의 아미타여래설법도 형식을 가진다. 벽화로 조영한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강진 무위사 성보박물관에 유일무이하게 현존하는 까닭에 신흥사 대광전의 아미타 벽화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고 보면 양산 신흥사 대광전엔 한국산사 벽화의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진귀한 명작들이 집결해 있다. 신흥사 대광전은 그 자체가 한국산사 벽화의 명작을 모은 미술관으로 손색없다. 사찰벽화 불후의 명작들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노재학 작가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 · 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